

## 제40회 모의고사 정답

1	2	3	4	5	6	7	8	9	10
⑤	④	③	⑤	④	①	③	③	①	④
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③	②	②	①	②	③	④	⑤	②	①
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④	⑤	④	③	⑤	②	⑤	②	①	②
31	32	33	34	35	36	37	38	39	40
②	④	⑤	②	③	②	③	⑤	②	③
41	42	43	44	45	46	47	48	49	50
③	④	③	①	②	④	③	①	③	③
51	52	53	54	55	56	57	58	59	60
④	①	②	①	②	⑤	④	⑤	②	④
61	62	63	64	65	66	67	68	69	70
③	⑤	③	③	③	④	⑤	③	①	②
71	72	73	74	75	76	77	78	79	80
④	⑤	③	②	②	①	①	③	④	③

### 1. ⑤ (P12)
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포의 노화(피하지방 감소) : 뼈와 근육 위축, 피하지방 감소</li> <li>• 면역능력의 저하 : 질병이 발생한 경우 급격하게 상황 악화</li> <li>• 잔존능력의 저하 : 적응력이 떨어져 일상 생활에서 어려운 상황 발생</li> <li>• 회복능력의 저하 : 합병증이 쉽게 발생</li> <li>• 비가역적 진행 : 인간 노력으로 노화 진행을 막을 수 없다.</li> </ul>	
	×	• 가역적 진행

### 2. ④ (P18)

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

### 3. ③ (P33)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
-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

양급여를 제공하여

-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-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.

### 4. ⑤ (P25)

### 5. ④ (P41)

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여 산정</li> <li>•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고, 징수 후 독립회계로 관리</li> </ul>
국가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%를 국가에서 부담</li> </ul>
본인 부담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설급여 20%, 재가급여 15%, 복지용구 15% 부담</li> <li>• 저소득층,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~60% 경감</li> <li>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(단,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)</li> </ul>

6. ① (P50)

7. ③ (P47)

요양보호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

- 계획적이고,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
-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.

8. ③ (P81)

정서적 학대

9. ① (P87)

③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관한 상담 및 지원,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,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⑤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,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,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사례를 일시보호 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

10. ④ (P93)

산업재해 보상 보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,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가능</li> <li>•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.</li> <li>•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.</li> <li>•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.</li> <li>•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.</li> <li>•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.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11. ③ (P93)

언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음란한 농담,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</li> <li>•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</li> <li>•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</li> <li>•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</li> <li>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</li> <li>•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</li> </ul>
육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맞춤,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</li> <li>•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</li> <li>•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, 신체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</li> </ul>
시각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</li> <li>•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는 행위</li> <li>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</li> </ul>

12. ② (P96)

직업 윤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종, 연령, 성별, 종교, 경제적 지위 등 이유로 대상자 차별 금지</li> <li>•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 인권옹호와 자기결정 존중</li> <li>•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</li> <li>•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 습득</li> <li>•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</li> <li>•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</li> <li>•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유지</li> <li>•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,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</li> </ul>
×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에게 물어보고 진행한다.</li> </ul>

13. ② (P102)

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,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속 강요한다면 관리 책임자와 다른 가족(자녀 등)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.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관 차원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린다.

14. ① (P97)


②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. ④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, 다음 방문 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. ⑤ 대상자에게 유아어, 명령어,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.


15. ② (P96)

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.

16. ③ (P109)

① 요통 ② 어깨 통증 ④ 목 통증 ⑤ 팔꿈치 통증
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근관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 자극</li> <li>• 손의 감각이상(감각저하), 저린 감각, 통증, 근력 약화</li> <li>•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</li> <li>•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장애, 밤에 통증 악화</li> <li>•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</li> </ul>
스트레칭 운동	 <p>①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.</p>

	②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.
자가진단법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리면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지 확인</li> <li>• 1분 정도 있을 때 손 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증후군</li> </ul>

17. ④ (P139)

① 옴 ② 호흡기질환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됨

18. ⑤ (P126)

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.</li> <li>•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 동반</li> <li>•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과정과 구분 곤란</li> <li>•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</li> <li>• 경과가 길고, 재발이 빈번하며,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.</li> <li>•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</li> <li>• 신장의 소변 농축능력과 배설능력 저하로 약물 중독</li> <li>•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.</li> <li>•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.</li> <li>• 활동 강도 및 노화에 따른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</li> <li>•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면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상태가 지속</li> <li>•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, 사회적, 경제적, 영적측면이 모두 연관</li> </ul>
----	---

19. ② (P130)

①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. ③ 충분한 수면, 심신 안정이 중요하다. 따라서 녹차를 삼가야 한다. ⑤ 위궤양의 원인이 된다.

20. ① (P138)

② 기침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. ③ 신체조직 내 수분 함유량의 감소로 콧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. ④ 호흡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호흡증가시 피로해지기 쉽다. ⑤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여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.

21. ④ (P147)

①② 저염식이, 저지방식이를 한다. ③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.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. ⑤ 당뇨병

22. ⑤ (P156)

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.

23. ④ (P163)

24. ③ (P164)

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기간의 외상 상태, 체위변경의 어려움</li> <li>•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,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의 지속적인 압력</li> <li>• 영양부족과 체중감소, 피하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 감소</li> <li>•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, 미생물 번식</li> </ul>
----	--

25. ⑤ (P185)

지남력 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낮에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.</li> <li>• 개인 사물,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, 달력, 시계 등을 가까이 둔다.</li> <li>• 일상의 절차, 규칙,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.</li> </ul>
--------	--

신체 통합성 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말로 지지</li> <li>• 능동적인 관절운동, 목욕, 마사지 제공</li> </ul>
개인 정체성 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</li> </ul>
초조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</li> <li>• 대상자를 부드럽게 마주보아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한다.</li> </ul>
착각 및 환각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기</li> <li>•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</li> </ul>
야간혼돈 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 둔다.</li> </ul>

26. ② (P173)

①⑤ 고막이 두꺼워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아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. ③ 노인성 난청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. ④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진다.

27. ⑤ (P180)

① 저혈당에 대비한다. ②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, 혈당이 300mg/dl 이상이면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. ③ 차갑거나 뜨거운 곳 노출 금지한다. ④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.

28. ② (P159, 205)

① 여성노인은 질 분비물이 줄어들므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. ③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한다. ④⑤ 감소한다.

29. ① (P204)

문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면 중에 자주 깬다.</li> <li>• 수면량이 줄어든다.</li> <li>• 잠들 때까지 오래 걸린다.</li> <li>• 낮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.</li> </ul>
×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면량이 늘어난다.</li> </ul>

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.</li> <li>• 커피 등 카페인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.</li> <li>•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.</li> <li>•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신다.</li> <li>• 취침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에 걸릴 수 있다.</li> <li>• 취침 전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.</li> <li>•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복용하지 않는다.</li> <li>• 낮잠을 가급적 삼간다.</li> </ul>
	<div>×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.</li> <li>• 취침 전 집중하는 일을 한다.</li> </ul>

### 30. ② (P210)

- ① 중독성 질환이다, ③ 폐기능이 향상된다.  
 ④ 간접흡연도 직접흡연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. ⑤ 혈중 일산화탄소와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.

### 31. ② (P214)

대 상	50~64세	65세 이상
파상풍/ 디프테리아/ 백일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차 기본접종은 모두</li> <li>• 이후 10년마다 파상풍, 디프테리아 추가접종</li> </ul>	
인플루엔자	매년 1회	
폐렴구균	위험군에 대해 1회~2회 접종	1회
대상포진	1회	1회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, 폐렴구균, 대상포진, 파상풍,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</li> </ul>	

### 32. ④ (P418)

- ① 상담일지 ② 욕구사정 ③ 인수인계서 ⑤ 사례회의록

### 33. ⑤ (P437, 438)

- ① ④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. ② 보고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. ③ 신속하게 보고한다.

### 34. ② (P500)

- ①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. ③ '사전연명의료의향서'를 등록했다고 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본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르라는 의향을 미리 전달해 두어야 한다.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. ⑤ 본인이 사전에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.

### 35. ③ (P505)

- ①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한다. ②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의 순환도 감소하므로 자연히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. ④ 차가워진다. ⑤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.

### 36. ② (P228)

- ①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잠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이 증진된다. ③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. ④ 너무 깊숙이 음식을 넣으면 사례가 들 수 있다. ⑤ 적은 양을 입에 넣어 준다.

### 37. ③ (P232)

- ① 50cc 주사기 ②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. ④ 사용할 때마다 세척한다. ⑤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내려와 위장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.

38. ⑤ (P234)

손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,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.

39. ② (P235)

①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. ③ 눈높이 ④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. ⑤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.

40. ③ (P237)

①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 버린다. ②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. ④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. 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.

41. ③ (P244)

① 오른쪽 ②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. ④⑤ 오른쪽

42. ④ (P246)

①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다. ②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. ③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배변 시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가려주며 편안한 상태에서 배설하게 한다. ⑤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.

43. ③ (P248)

①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. ②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. ③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, 30~45° 비스듬히 붙인다. ④ 왼쪽 ⑤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방지매트를 깔아주어,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.

44. ① (P249)

45. ② (P252)

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,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,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.

46. ④ (P257)

①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한다. ②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행구고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는다. ③ 칫솔질로 치아뿐 아니라 혀까지 잘 닦아준다. ⑤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.

47. ③ (P260)


①⑤ 어깨 아래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. ②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, 눈에 수건을 올려놓는다. ④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.

48. ① (P261)

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일 때</li> <li>• 모발에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 마사지</li> <li>•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 준다.</li> </ul>
-----------------	---

49. ③ (P265)

①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. ②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. ④ 코팅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 준다.

눈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.</li> <li>•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.</li> <li>•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사용한다.</li> <li>•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.</li> </ul>
---	--

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 입구 귀지를 닦아낸다.</li> <li>•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도록 권한다.</li> </ul>
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준다.</li> </ul>
입, 이마, 볼, 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건에 비누를 묻혀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, 이마와 볼, 목의 앞, 뒤를 골고루 세심하게 닦는다.</li> </ul>
세수 돕는 순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눈 → 코 → 뺨 → 입 → 이마 → 귀 → 목</li> </ul>

#### 50. ③ (P270)

기본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욕은 전신의 신진대사 촉진, 혈액순환, 근육 및 관절의 이완을 돕는다.</li> <li>• 목욕물 온도 40℃ 내외로 맞춘다.</li> <li>• 식사 직전·직후에는 피한다.</li> <li>•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아 안전사고 예방</li> <li>• 목욕시간 20~30분 이내</li> <li>•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.</li> <li>• 치매노인 목욕 거부할 경우 → 강제로 목욕을 시키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유도</li> </ul>
통 목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욕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끼도록 한다.</li> <li>• 물로 행구는 순서(발 → 다리 → 팔 → 몸통 → 회음부)</li> <li>•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건강한 손으로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잡게 한다.</li> <li>•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,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도록 한다. (욕조에 있는 시간 5분 정도)</li> </ul>
침상 목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.</li> <li>• 눈 → 코 → 뺨 → 입 주위 → 이마 → 귀 → 목의 순서로 닦는다.</li> <li>• 양쪽 상지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.</li> <li>•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.</li> </ul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.</li> <li>•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닦는다(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도움).</li> <li>•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.</li> <li>• 목욕을 마친 다음에는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.</li> </ul>
---

#### 51. ④ (P284)

#### 52. ① (P292)

작동 기본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그재그 : 막길 / 경사길 / 비탈길 / 언덕길 → '길'</li> <li>• 뒤로 이동 : 무조건 내려갈 때</li> <li>• 앞바퀴 들어 올린 경우 : 'ㄷ' (턱, 통) → 문턱, 도로턱, 울퉁불퉁</li> <li>• 엘리베이터 :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(주차와 같은 방법).</li> </ul>
---------	--

#### 53. ② (P299)

#### 54. ① (P300)

대상자의 허리 부분(벨트 부분)에 맞춰 벨트를 묶는다.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. 다른 한 손으로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.

#### 55. ② (P304)

계단 오를 때	① 지팡이 ② 건강한 다리 ③ 마비된 다리
계단(평지) 내려갈 때	① 지팡이 ② 마비된 다리 ③ 건강한 다리
※ 첫 번째 다리를 이동하였을 때 항상 건강한 다리가 높은 곳에 위치	

#### 56. ⑤ (P311)

① 간이변기 ② 보행기 ③ 욕창예방방석 ④ 목욕의자 ⑤ 수동형 휠체어

대여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동휠체어</li> <li>• 수동침대</li> <li>• 목욕리프트</li> <li>• 경사로(실외용)</li> <li>• 전동침대</li> <li>• 이동욕조</li> <li>• 배회감지기</li> </ul>
구입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동변기</li> <li>• 목욕의자</li> <li>• 욕창예방 방식</li> <li>• 성인용 보행기</li> <li>• 안전손잡이</li> <li>• 자세변환 용구</li> <li>• 경사로(실내용)</li> <li>• 미끄럼방지용품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</li> <li>• 간이변기(간이대변기 · 소변기)</li> <li>• 지팡이</li> <li>• 요실금팬티</li> </ul>
구입 또는 대여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욕창예방 매트리스</li> </ul>

57. ④ (P338)

58. ⑤ (P331)

59. ② (P332)

화재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.</li> <li>•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.</li> <li>• 난로 곁에는 불이 붙는 물건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.</li> <li>•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 두고 사용법을 익힌다.</li> </ul>
대처 방법 및 대피 요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간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</li> <li>• 옷에 불이 붙으면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.</li> <li>•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(엘리베이터 사용 금지).</li> <li>•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옥상으로 대피한다.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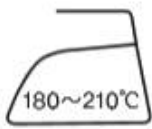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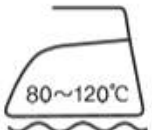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낮은 자세로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이동한다.</li> <li>• 방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한 후 만진다.</li> <li>•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.</li> <li>•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막는다.</li> <li>•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.</li> </ul>
--

60. ④ (P366)

① 충분한 수분섭취와 식이섬유 섭취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. ②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 대신 생과일 섭취를 권장한다. ⑤ 가급적 도정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 및 감자류, 생채소 섭취를 증가시킨다.

61. ③ (P386)

[표시기호]

	• 180~210℃로 다림질
	• 원단 위에 천을 덮고, 80~120℃로 다림질
	• 다림질할 수 없음

62. ⑤ (P388)

① 대상자의 외출목적에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외출준비를 돕는다. ②⑤ 도보 시 보폭을 작게,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곳에 모아 쉬면서 천천히 이동한다. ③ 동행 전 대상자의 외출목적에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외출준비를 돕는다. ④ 뒷좌석에 같이 앉도록 한다.



63. ③ (P446)

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이다.

64. ③ (P456)

치매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.

65. ③ (P457)

기본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.</li> <li>☞ 치매 대상자가 식사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→ “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깐 조금만 기다리세요.”라고 얘기한다.</li> </ul>
돕는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그릇의 크기를 조절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.</li> <li>•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.</li> <li>•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 준다.</li> <li>•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→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.</li> <li>•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,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.</li> </ul>

66. ④ (P459)

67. ⑤ (P460)

68. ③ (P461)

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.

69. ① (P462)

파괴적 행동이란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. 이러면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린다.

70. ② (P465)

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,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.

71. ④ (P480)

‘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’ 등 청각적 자극은 집중력,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지난 일을 이야기한다면 언어능력, 지남력까지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.

72. ⑤ (P404)

73. ③ (P406)

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</li> <li>•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동에 대한 비난, 비평, 평가의 의미를 전하며,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표현</li> <li>• 나-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둔다.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-전달법이 바람직</li> </ul>
주의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지 않는다.</li> <li>•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 데 열중하여 말하는 사람의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.</li> <li>•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.</li> <li>•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.</li> <li>• 나-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다시 수용적 태도(경청)를 취한다.</li> </ul>
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한다.</li> <li>•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한다.</li> <li>•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.</li> <li>•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.</li> <li>•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.</li> <li>• 전달한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.</li> </ul>

74. ② (P410)

대상자와 의사소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춘다.</li> <li>•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는다.</li> <li>• 본인을 소개할 때 이름, 소속, 역할 등을 전달한다.</li> <li>• 대상자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, 대상자의 허락 하에 어르신 등으로 호칭</li> </ul>
-----------	---

75. ② (P412)

언어 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.</li> <li>•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.</li> <li>• 면담 시 앉아서 하고,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.</li> <li>•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린다.</li> <li>•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, 아니오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.</li> <li>• 실물, 그림판,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.</li> <li>• 잘 표현하였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.</li> </ul>
-------	---

76. ① (P413)

지남력 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</li> <li>•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</li> <li>• 시간, 장소, 사람, 날짜, 달력, 시계 등을 자주 인식</li> <li>•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</li> </ul>
--------	---

77. ① (P516)

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는다. 다른 한쪽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. 한 번으로 이 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하여 시행한다(하임리히법).

78. ③ (P520)

①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(5~12℃)에 담가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준다. ②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. ③ 반지, 팔찌,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.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져 빼기 힘들기 때문이다. ④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. ⑤ 화상 부위에 간장, 기름, 된장, 핸드크림, 치약 등을 바르면 세균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된다.

79. ④ (P527)

80. ③ (P533)